

“청정한 마음의 본성에서 보리심 생긴다”

보광 스님, ‘정토교에서의 깨달음 문제’ 한국정토학회 학술세미나서 발표

정토교는 염불 등으로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해 극락왕생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신심을 바탕으로 하는 타력신앙 정토교에서 깨달음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한국정토학회(회장 태원)는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승불교에서의 깨달음의 문제’를 주제로 제1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은 주제발표 ‘정토교에서의 깨달음 문제’를 통해 ‘발보리심이 정토왕생의 정인(正因)이며, 깨달음의 첫걸음’이라 강조했다.

보리심은 아득다라삼막삼보리심을 말한다. 부처의 지위에 들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자로는 무상정진도의(無上正眞道意), 무상도심(無上道心), 도심(道心) 등이라 한다.

스님은 “보리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청정한 마음의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현상에 의해 생기는 연사보리심(緣事菩提心)과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해 생기는 연리보리심(緣理菩提心)으로 구분된

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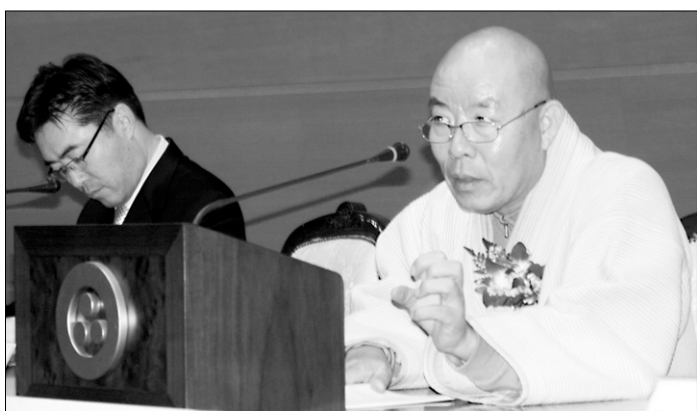
대표적인 보리심은 사후서원으로, 연사보리심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 공덕과 가피를 체험하거나 믿음으로써 생기는 불심이며,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좋아서 불교를 종교로 갖게 된 것은 연리보리심이다.

하지만 일본 다카미 다이슈 교수에 따르면, 보리심은 대승불교만이 갖는 대표적인 용어로 대승불교 이전에는 ‘아득다라삼막삼보리심’이란 용어가 없었다.

다카미 교수는 저서 <보리심의 연구>에서 “발보리심과 같은 적극적인 표현은 대승불교에서 나온 용어이지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광 스님은 “대승불교의 시작은 발보리심부터이다”라며 정토삼부경을 중심으로 발보리심을 설명했다.

<무량수경>에는 법장 비구가 국왕으로 있으면서 세자제왕여래의 설법을 듣고 무상정진도의를 내 출세간한 이야기 있다. 스님은 “보리심으로 인해 국왕이 법장 비구가 되고, 법장보살이 되고, 아미타불이 된



12월 7일 한국정토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보광 스님(오른쪽)이 ‘정토교에서의 깨달음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사회자 황순일 동국대 교수.

법인에 의한 깨달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보리심 자체가 보살심의 종자이고, 일체 모든 법을 출생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보리심을 낸 후에만 어떠한 과(果)를 증득할 수 있다”며 “정토경전 외 다른 경전은 발보리심으로 인한 정·삼매·도중생(度衆生)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토경전은 한 믿음을 내는 것이며, 이 보리심이 깨달음과 왕생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태원 스님도 ‘발심과

한 수행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법인’이라며 ‘법인은 <법구경> <잡아함경> <중일아함경> <열반경> <보살지지경>으로 발전했고, 수행은 위빠사나적인 수행법으로 관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법인의 관은 나와 다른 객관의 대상은 고(苦) 아닌 것이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며 “법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일체개고’라 했고, 고통이 시간적으로 항상 변하는 것을 ‘무상’이라 했으며, 공간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것을 ‘무아’라고 했다. 고통은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고’가 ‘공’인 줄 알게 돼 청정한 진여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권관준 금강대 교수가 주제발표 ‘화엄에서의 증득의 문제’를, 김호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목조선의 깨침에 대한 구조와 그 내용’을, 안준영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가 ‘열불선에서의 깨달음의 문제’를 발표했다.

법인은 ‘일체개고’ ‘제법무아’ ‘제행무상’ ‘열반적정’ 등이다. 태원 스님은 “발심 후 깨달기 위

황 교수는 “물위의 물결이란 외형을 보는 것보다 그 아래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적 언어적 변화를 보고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유에 사용된 용어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비유를 통해 지시된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금동 한국외대 교수가 ‘갈라디아서 서정시에 나타난 비유 고찰’을, 최연철 동국대 외대교수가 ‘비유, 그 불교적 증지에 관한 고찰’을, 최경아 동국대 외대교수가 ‘자아와 개인에 대한 정의 고찰’ 등을 발표했다.

황 교수는 “물위의 물결이란 외형을 보는 것보다 그 아래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적 언어적 변화를 보고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유에 사용된 용어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비유를 통해 지시된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금동 한국외대 교수가 ‘갈라디아서 서정시에 나타난 비유 고찰’을, 최연철 동국대 외대교수가 ‘비유, 그 불교적 증지에 관한 고찰’을, 최경아 동국대 외대교수가 ‘자아와 개인에 대한 정의 고찰’ 등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교 중흥한 문정왕후 재조명

리영자 교수, 불교학술대회서 기조강연

문정왕후는 허응당 보유 선사(1507-1565)와 조선 중기 불교를 부흥시킨 역사적 인물이다.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불교 중흥책은 조선 중기 불교를 조선 전시기로 통틀어 최고 수준의 불화로 제창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서산·사명 등 고승이 배출되는 토양을 이뤘다. 불교 중흥에 광복할 만한 토대를 이룬 업적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조선왕조실록> 등에 부정적으로 기술했다.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11월 28일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50회 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했다.

리 명예교수는 기조강연 ‘문정대비의 불교부흥과 한국불교’에서 ‘조선조 불교사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정대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늘날 한국불교가 이 정도나마 지탱되는 것은 문

정대비를 비롯한 몇몇 대비들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몇몇 사료를 비롯해 대종매체에 부각되는 문정대비는 중종의 후비로서 아들 명종의 정치적으로 대행한 자로 비춰진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를 매체에서 문정대비는 수렴정정하며 윤원형 등 윤씨 가족의 영달을 추구하는 간담 어린 궁중여인으로만 묘사했다.

리영자 명예교수는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후 승관제도를 만들 때 최고 통솔자인 승통 다음에 ‘도유나랑’이라는 비구니승을 통솔하는 직책을 둔 것은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면서 “고려·조선시대의 여성불교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행사에는 ‘허응보우의 불교중흥(고영성 동국대 교수), ‘문정왕후의 불교중흥정책’(김상현 동국대 교수), ‘허응당 보유 선사의 정토관’(동국대 보광 스님), ‘보우의 불교사상과 유·불 융합조화론’(이봉춘 동국대 교수)이 발표됐다.

발표자들은 “불교 중흥의 업적을 토대로 문정왕후와 보유 선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조동섭 기자

단청의 오방색 학술적 조명돼

태경 스님, 연륜연대·미술사 학술대회서 발표

단청 등에 쓰이는 청·백·적·흑·황의 오방색과 채색의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처음 시도됐다.

태경 스님(동국대 박사)은 12월 5일 충북대 목재연륜소재은행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한국목조각상의 수종과 연륜 분석 그리고 미술사적 해석’을 주제로 개최한 연륜연대와 미술사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했다.

스님은 주제발표 ‘불복장의식에 나타난 오방색과 채색의에 관한 시론’을 통해 “불교에서의 색은 물질적 존재의 총칭을 뜻한다”며 “영어의 ‘color’보다 훨씬 광의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태경 스님은 <조상경>을 통해 오방색의 종류와 단을 만들 때 채색하는 방법인 채색의에 대해 설명하며,



태경 스님이 연륜연대 미술사 학술대회서 발표하는 모습.

“채색의는 단청에서 채색방법으로 쓰는 도채와 동일하다”는 특이점을 도출했다.

스님은 단청의 빛깔이 <묘갈상대교왕경>의 오방색과 가까운 것은 △공의 체득을 상징하는 비로자나불의 얼굴색을 불화·단청 등에서 사용하는 색의 하나로 정했다는 점 △채색의의 방법으로 불복장의식의 완전한 성취를 그려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비유 이해하려면 의도 바로 알아야”

황순일 교수,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주장

“비유를 통해 어떤 내용이 지시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를 사용한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조기경전의 열반에 관한 서술을 예시로, “사건의 개별적인 설명보다는 비유적 성격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12월 4일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초기부파불교에서의 비유와 열반’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열반을 ‘세가지 불(三火)’의 소멸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때, 세가지 불이란 용어

자체의 의미파악보다 이 용어를 통해 탐냄, 혐오, 어리석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번뇌들이 지시된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순일 교수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려면 의도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이미 외수반두(=세친) 등에 의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외수반두의 “물고기와 물결” 비유가 대표적인 예. 외수반두는 <성업론>에서 “신체와 음성의 외적인 변화는 그 마음의 의도를 알게 한다.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결을 일으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물위의 물결이란 외형을 보는 것보다 그 아래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신체적 언어적 변화를 보고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유에 사용된 용어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비유를 통해 지시된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금동 한국외대 교수가 ‘갈라디아서 서정시에 나타난 비유 고찰’을, 최연철 동국대 외대교수가 ‘비유, 그 불교적 증지에 관한 고찰’을, 최경아 동국대 외대교수가 ‘자아와 개인에 대한 정의 고찰’ 등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청 명승 8개소 재분류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은 명승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8개소를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했다고 12월 7일 발표했다.

이번에 ‘명승’ 지정된 ‘속리산 법주사 일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두륜사 대흥사 일원’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부여 구드래 일원’ ‘서울 백악산 일원’ 등 8개소는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관리돼 오던 곳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인정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 재분류됐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재분류 지정된 ‘명승’의 각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8일에는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 됐다.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春川 淸平寺 高麗禪院)’은 아늑한 분지형을 이룬 입지 환경 속에 계곡, 영지(影池), 소(澗), 기암괴석, 폭포 등이 어우러진 절경을 간직하고 있는 명승지이다. 또, 도교적 은둔관과 불교의 선사상이 내재된 곳으로 이제현, 나옹, 김시습, 이항 등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 머물며 글을 남겼다.

청평사는 경내에 한국 전통 연못의 대표적인 조경시설인 ‘영지(조선 초 ‘쌍지’로 개축), 보물 제164호 화전문, 강원도 기념물 제5호 청평사지, 문화재자료 제8호 청평사 3층 석탑 등이 있다. 조동섭 기자

세계제일 적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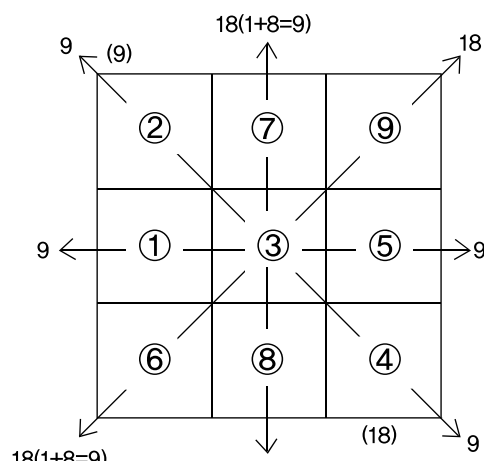
집중 2주완성
저자 : 법화종현(정흥교) 큰스님 직강



· 녹아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월·수·금 : 오후 2시 - 5시
토·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잡아 5분안에 길흉,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 이사방위, 신통법, 조상천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함
- 사찰 포교당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입 가능함
- 구단구궁법은 법화종현 큰스님께서 만든 특단의 학문입니다.
- 법화종현 큰스님은 본 대학에서만 직강함.
- ◆ 특전 ◆
 - 12월 등록자 수강료 (2주) 35만원
 - 방문시 교재판매
 - www.psa.or.kr 홈페이지 참조



구단구궁 원리도

◆ 년비결문구수가 ④ ③ ②가 나왔을 때 월·일·시의 해당 구궁문구수를 알아보는 그림

※월(月)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해당월(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당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일(日)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날	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결문구수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날	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비결문구수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날	짜	25	26	27	28	29	30						
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시(時)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비결문구수	②	⑦	⑨
해당 시간	19~21시	11~13시	15~17시
비결문구수	①	③	⑤
해당 시간	17~19시	21~23시	
비결문구수	⑥	⑧	④
해당 시간	09~11시	13~15시	23~01시

